

(주)대우건설 충청로디오빌 신축 현장

다변화하는 현장에 안전일변도로 승부

어느덧 찬바람이 성큼 다가와 옷깃을 여미게 하고, 나무의 입새도 하나 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위에 매달린 이파리 하나마저 버거워 보인다.

무엇인가 마무리 지으려는 성급함이 앞서기도 하는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서울 충청로에서 대우건설이 디오빌 신축(최한중 소장)에 한창이다.

“선진안전현장”으로의 구현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이곳에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안전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전공법으로 근원적 안전 확보

이곳 현장 주변에는 충청로 지하철 역사가 있어 지하철이 매일 지나가고, 양 옆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이 즐비한 가운데 바로 뒤편에는 대사관 등 민가들이 있는 악조건 속에서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로 지정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시공하고 있는 공법인 SPS 공법을 적용하였다.

SPS 공법은 지하층 분 구조물에 해당하는 빔과 거더를 SIRUT로 굴토공사시 흙막이 지지대로 사용하고, 굴토 공사 후 골조 공사시 해체하지 않고 바로 본 구조물의 주 구조의 부재로 사용되는 공법으로 SIRUT 공법에서 설치·해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주고 인근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자체적으로도 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원천 봉쇄



▲ 최 한 중 소장

건설안전리포트

함으로써 시공상 안전을 확보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기절감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진 시공법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디오빌 현장은 공중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이곳 현장의 지반은 100% 암반이라 발파작업이 불가피하였으나, 무진동 발파와 문화재 주변 공사 시 진동속도 기준인 0.3kine보다 낮은 0.2kine의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발파 작업시 대형 고무키버를 백호우를 이용하여 뒤집어씌움으로써 발파에 따른 파석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실시간 진동치를 측정하고 감시함과 함께 오감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삼중 사중의 안전을 마련하고 안전시공을 함으로써 디오빌 현장은 벌써 선진안전현장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따뜻한 소장과 따뜻한 현장

이처럼 앞서가는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이곳 현장에는 매일 4번씩 현장 점검을 하는 변함 없는 최한중 소장이 있다.

“내 생명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 활동에 참여할 것”을 늘 당부하는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다. 외모에서도 온화하고, 따뜻하며,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는 현장에서도 명령식이거나 규범적이지 않고, 감성으로 호소한다. 사람은 감성의 동



물이라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그 이상의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안전도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누가 옆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당장은 시정될지 모르나 오래 지속되지 못함으로 그 취지를 감성으로 전달할 때 근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안전한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은 다변화하는 장소이기에 혼자만의 생각이나 추측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에 빠르게 변해가는 현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한중 소장이 매일 4번씩 현장순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압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근로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최한중 소장은 오늘도 따뜻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디오빌 현장을 향한다.

이 곳 현장이 특별한 이유

건설현장하면 여느 현장이나 상황이 비슷하여 특별하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이다. 그러나 이곳 디오빌 현장은 특별한 것이 있다.

안전관리자라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외국 현장에서는



Safety Engineer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권한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는 곳은 없다. 이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곳이 이곳 디오빌 현장이다. 안전교육장에 작업중지 스티커가 비치되어 있고, 최진혁 안전관리자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다. 금년도에 벌써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킨 사례도 4차례나 있다.

여느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디오빌 현장에서는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 한가지만 보아도 이곳은 특별하다.

이 밖에도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3S System(Safety Patrol, Safety Education, Safety Zone)과, 6년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35운동 강화(작업전 5분 안전점검, 작업전 5분 안전교육, 작업후 5분 정리정돈)로 대우건설의 선진 안전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준공 그날까지 단 한건의 사고를 용납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 곳 현장사람들은 앞으로 진행할 공정에 대해 각 공정마다 미리 위험포인트를 찾아내어 시공에 반영하는 예방안전에 주력한다고 한다.

층고가 높아지는 5층부터는 창공사를 바로 추진함과 자재반출구는 여단이식으로 설치하여, 이 곳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으로써 재래형 재해인 추락재해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등안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신입 직원에게는 선임 직원의 OJT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선진안전현장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도 함께 가지고 있다. 

〈최종덕 기자〉

